

광주 에너지 메카 도시 조성 급물살

특별법·시행령 공고 등 법적 토대 마련... 국가사업 확대키로

국정과제인 '에너지밸리 조성' 및 대선 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메카도시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제정이 최근 공고되는 등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일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제정(안)이 공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은 에너지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융복합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특별법이 공포된 후에는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구용역기관에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조항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한 바 있다.

'우선구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의 물품, 서비스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과는 광주 시 등의 의견에 공감해 우선구매 등 조항을 받아들여주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했다.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대상 및 절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산학연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을 대비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TF팀'을 꾸리고 '조성 계획'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4월 23일까지 산자부 에너지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 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명박 구속 여부

내일 밤늦게 결정

영장 실질심사 출석 안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범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다.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을 통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 문명' 결정할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는 누구?

법·원칙 따라 객관적 처리 '간간'

**영암 출신·인성고·서울대
광주일보 칼럼 필진 활동
신연희 구청장 영장 발부**



일부 법조칼럼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판결에 모두가 수긍하는, 아름다운 재판을 꿈꾸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박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광주지법 판사(2004년), 순천지법 부장판사(2012년),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범원행정처 윤리감사 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면서 뛰어난 법리해석 능력과 균형감각 등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신고식'을 치렀다. /박진표기자 lucky@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사진)부장판사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 출신으로 1990년 광주 인성고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간간한 판사'로 통한다.

박 부장판사는 또 지난 2005년에는 광주

한미 연합훈련 축소...내달 1일 시작

남북정상회담 등 고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가 내달 1일 시작되는 올해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독수리(FE)훈련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가량, 키리졸브(KR)연습은 내달 23일부터 2주가량 각각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훈련 날짜는 공개했지만, 키리졸브연습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국 군 당국이 예년과 달리 키리졸브연습 일정을 비공개하는 등 전통적인 훈련 상황을 '로키'(low-key)로 하는 것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및 5월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가 중요시설 및 주요 병참기지 방호, 해상 기뢰제거, 연합해병훈련 등의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해병훈련은 1일부터 8일까지 갑상상륙함 와스프함(LHD-1)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쌍룡훈련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무기와 우리 군의 핵심무기를 공개적으로 동원해 북한의 중요시설 및 전략무기 시설을 가상 정밀타격하는 연

습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무기는 공개적으로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 독수리훈련 때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동원됐던 사례가 많았다.

그간 한미 연합훈련은 연합사 '작전계획 5015' 등이 적용되어 시행됐으나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주요한 변화다. 이는 이번 훈련이 작년과 달리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동원하는 병력과 장비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도 이번 훈련의 특징이다. 다만, 미군 측은 독수리훈련에는 1만1500여명, 키리졸브연습에는 1만2200여명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독수리훈련 참가 미군 병력 규모는 비슷하지만, 키리졸브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은 약간 축소됐다. 해외 증원군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독수리훈련에는 주한미군과 해외 증원군을 포함해 모두 1만여명의 미군 병력이 투입됐다. 당시 우리 군 병력은 30여만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독수리훈련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훈련 기간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선희·최진희·윤도현 등 160여명 규모

남북 예술단 합

가수 조용필과 윤도현, 정인, 서현, 걸그룹 레드벨벳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에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남북은 20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160여 명으로 구성된 남북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정인, 서현, 알리와 걸그룹 레드벨벳 등이 포함됐다.

보도문에 따르면,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각 1회 공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연 날짜는 잠정적으로 4월 1일과 3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술단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해 남북 사전접촉단이 22~24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측은 남북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남은 실무적 사안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과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현승일 삼진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승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권·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좋음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시 30분 내 6천만원
- 완도 악산면 특임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장성 심계면 사창리 대지 366㎡ 주택임대 3200만원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2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양동시경전너 재개발지역 대로면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집 준공업지 1702㎡ 급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순창군 북흥면 산 330248㎡(추월산) 3억5천
- 담양 금성면 봉서리 산 61492㎡ 귀촌생활용 3억
- 금남로5가 대로면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용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집 1억3천
- 화산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평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사귀포시 발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집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판권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도벌·카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용 12억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
- 산성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이,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억(보이,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임양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면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육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캐시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면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육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 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척리 재1중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선성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음시 신성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시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션, 카라방,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불 대폭 조정가